



제목	The Rubaiyat of Omar Khayya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발행일	2015. 5. 15.
저자	Omar Khayyám Edward Fitzgerald(번역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112
ISBN 또는 ISSN	978-1851244171

내용 요약

루바이야트(Rubáiyát)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사랑 받고 가장 인기 있는 시 형식 중 하나이다. 이 책은 페르시아 시인이자 철학자인 오마르 하이얌(Omar Khayyám)이 11세기에 쓴 4행시 모음집으로 1859년 에드워드 피츠제럴드(E. Fitzgerald)가 영어로 번역하여 최초로 출판했다. 그때까지 서구에서는 오마르 하이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피츠제럴드 영어 번역본이 나온 후 오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야트는 아놀드(M. Arnold)와 하디(Th. Hardy)를 비롯한 서구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마르 하이얌은 고통스러운 삶을 간결하게 애도하는 방식으로 루바이야트를 썼는데, 그의 4행시가 주는 멜랑콜리 한 분위기와 수수께끼 같이 애매모호한 그의 철학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독자들은 그의 시에 심취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수많은 음악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오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야트 덕분에 1913년에 르네 볼(René Bull)이 풀 컬러 일러스트를 가미한 시집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판본에서 저자는 시의 화려한 관능적인 이미지를 과감하게 해석함으로써 피츠제럴드 번역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이 판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시는 골드 테두리의 프레임 속에 들어 있다.